

2010년 3월 17일 하늘의 보물 선생

대전 평화 교회 여자치어 중앙교역자. 양귀비

2009.12.16 새벽 하나님의 말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걸 느끼고 깨달았느냐? 진정 예수가 떠나고 너희에게 남은 길, 답은 선생뿐이니 예수가 떠나기 전에 선생이 그곳에서 나오길 기도하라. 그리고 실천하라.

10만 집회 괜히 너희에게 하라고 한 것이겠느냐.

생명 전도가 진정 급하고 중요하다. 생명 전도는 조건이 되는 것이다. 너희가 천국으로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다.

선생, 그 귀하고도 귀한자. 너무나 귀해서 다 표현이 안되는 귀하고 귀한 이 세상 누구보다 귀한자다. 너희가 그저 바라만 볼자가 아니라 따르고 믿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줘야하는 귀하디 귀한 이시대 최고의 하늘 사람이다. 내가 낸 자요, 예수가 낸 자다. 그는 하늘의 보물이다. 예수와 나는 그 보물의 주인이요. 선생은 진정 값비싼 보물이요. 내가 너무나 아끼고 주 예수도 너무나 아끼는 진귀한 보물이니 나와 예수, 성령이 역사하노라. 가정에 가보가 있으면 진정 귀하게 여기듯 그보다 진정 귀한 자니라. 그런데 어찌 심정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느냐. 더 깊이 그를 위해 기도해주어라. 기도하면 사고도 면하고 죽음에서도 면하듯이 내가 너희의 기도로 역사할텐데 너희의 가슴에 마음에 몇%의심과 믿지 못함을 가지고 있구나.

나의 전지전능함을 깨달아 그의 앞날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진정 예수가 떠나면 너희가 예수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선생을 통해서이니 그는 이미 내가 택한자이기 때문이다. 진정 하늘이 낸 사명자이니라.

섭리야 기도하라. 환란속에 가장 빛나는 한송이 꽃이여. 그가 바로 선생이니 그를 붙잡아라. 답이니라, 길이니라. 예수와 통하고 그와 통하는자, 세상을 얻은자니라. 선생을 통해 가장 너희에게 가장 귀한 말씀을 전하니 너희는 그의 안위와 그가 기도할 수 있게, 그가 나의 깊은 말씀을 받을 수 있게 진정으로 기도해라. 진정으로 기도해야한다. 예수가 떠나면 너희 눈에 환란은 확연히 드러나고 더욱 피부로 느끼니 너희들의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다. 선생이 할 일이다. 그는 진정 홀로 싸우며 혹여 구원역사 못타는 자가 있을까 천국 계단이라도 만들고 싶은 심정으로 뛰고 있으니 그를 위해 너희도 한몫 되어 뛰어라. 세상의 고난 아픔 이길 수 있게 하라. 그에게는 너희 섭리사가 보물이니라. 예수도 직접 키우고 기른 귀하고 귀한 선생. 인생중에 가장 귀한 인생이로다. 가장 나의 심정에 맞는 인생이로다. 세상은 몰라도. 너희만은 그것을 아니 세상에 알려주어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어라. 그것은 너희가 할

일이다. 그와 함께 하는자 천국 오는 길을 걷고 있는 자다. 그 방법을 잡은 자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생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극찬에 극찬을 더해도 모자르지 않는자여 너의 고난속 조건이이 예수의 고난의 길과 같으니 너의 사탄도 네 앞에 무릎을 꿇는 구나. 고맙다. 내 사랑, 내사랑 선생이여.

내 보물 1호라. 내 보물, 내가 간직하고 다닐 보물과 같은 귀한 인생아. 더욱 힘을 내고 힘을 내여 나의 심정 더 전해다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나의 깊은 마음 세상에 널리 알려다오. 나의 사랑 나의 선생, 내 너를 보며 마음에 평화가 오니 진정 나의 신부, 내 사랑이라. 예수의 진정한 사랑이요, 첫째 신부니라.

다시 섭리사에 말씀하셨습니다.

섭리사여, 진정 내 마음을 기억하여 그를 위해 기도하라. 그의 운명이 너의 운명과 같으니라. 사랑한다. 귀 있는자이 모든 나의 말을 듣고 행할지어다. 주 여호와 만왕의 왕이라.